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65 (403-720)

호스피스팀 사무실 전화 : 032-510-5009

홈페이지 : <http://www.cmcolmh.or.kr>

급 변하는 현대의 의료 현장 속에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자신의 소중한 몫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 호스피스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올해 9월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에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으로 명칭을 새로이 변경하며 보다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은 인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986년 호스피스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든 호스피스의 활동이 그러하듯이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은 병원 및 가정에서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 아직은 병원 사정상 병동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산재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알차다고 할 수 있겠다.

호스피스팀 가족들을 소개하자면 원목실장 성제현 신부와 마취통증의학과 박수석 교수, 이은정·김홍복 수녀를 비롯하여 자원봉사자 41명이 한 팀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회사업팀의 김명진 사회복지사가 협력하고 있다.

본 호스피스팀은 연평균 250여명의 대상자를 돌보고 있는데 주요활동 중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병실방문을 통해 환자 및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해 주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있어 발맞사

지와 아로마 향기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이발(2회/주)·세발(매일)봉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종교적 원의가 있는 경우 방문교리를 통해 세례를 시행하기도 한다.

셋째, 사별가족 관리로써는 100일 편지보내기과 연1회 사별가족 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으로는 매일 월례교육이 있는데 봉사자들이 원하는 내용과 봉사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알차게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 참가율도 90%에 달하고 있다. 연2회 외부 활동(야유회 및 성지순례)이 있으며 연1회 피정 및 특강 등도 실시되며 연말에는 성탄파티와 봉사체험 나누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구청과 연계하여 봉사자 실적관리를 하고 있다.

20여년 동안 한결같은 봉사의 모습이 이젠 지역 사회에 널리 알려져 지난해(2007.12)에는 제2회 인천사회복지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보람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호스피스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간단하게 본 호스피스팀에 대해 소개해 보았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넘어지기도 했고 주춤하기도 했으며 그로인해 아쉬움으로 남는 순간들도 많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팀원들이 모두 한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오늘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이 있게 된 가장 큰 힘이라고 본다. 말기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우린 호스피스라는 벚을 통해 인생의 진면목과 자아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가야할 길이 멀고 부족하기만한 모습을 소개하고 나니 훌륭하게 호스피

스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송구스럽기만 하다.

끝으로 이시간도 말기 질환의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과 가족들을 기억하며, 하루 빨리 호스피스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해 본다.



“21C 착한 사마리아인, 누가 내 이웃인가?”

- 천주의 성 요한 병원 호스피스센터 -

500-868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15-1번지(태봉로 61)

간호사실 전화 062)510-3071~2 Fax 062)510-3151

홈페이지 : <http://www.yohanospice.co.kr>

1958년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아일랜드 관구 소속 5명의 수사들이 긴 뱃길을 항해하여 전쟁으로 폐허가 된 광주에 도착한 후 병자들을 위한 지역 의료 및 가난한 이들과 고아들을 위한 구호활동 등의 수도회 사업을 전개하였다. 1960년 내과·피부과를 중심으로 천주의 성 요한 병원을 개원하여 수도회의 핵심 가치인 환대, 동정, 존경, 정의, 탁월함을 기준으로 수도회의 사명인 손님중심, 인간화 된 병원, 전인적 치료를 펼치고 있다.

1980년부터는 저소득층의 말기환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방문을 실시함으로써 호스피스 활동의 막을 올렸다. 아일랜드 더블린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가정방문을 담당하던 브랜던 수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호스피스 설립을 위하여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재교육을 받았다. 이후 1990년부터는 호스피스 활동이 전무했던 광주·전남 지역에서 5권의 전문서적을 번역, 출판하고 대중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강의를 하였으며, WHO 의료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적인 교류 활동을 실시하였다.

재가 암환자와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7년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7개의 병상과 주간 보호센터를 개설하였다. 현재 27병상의 독립병동으로 운영중이다.

2000년에는 중국 연변에 3명의 수사를 파견하

여 호스피스병원 건립을 추진하였고, 2004년 연변 호스피스 병원 의료팀(의사 1명, 간호사 3명)에게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호스피스 병원을 개원하였다.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38회에 걸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약 천 여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월 1회 월례회를 통해 정서적 지원 및 보수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대학생들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9회에 걸쳐 약 300여 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2006년 의료인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단기 교육과정을 16주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2007년 호스피스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 추모미사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적인 호스피스 치료팀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간호사가 배정되어 환자와 가족 상담을 하고 있다. 매주 1회 가족모임을 통해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하며, 사별가족을 위해 정기적인 전화 상담과 위문카드를 발송하고 매년 1회 사별가족을 위한 추모미사와 모임을 실시한다. 또한 가족들에게 상담실, 교육실, 원목실, 경당(소성당), 및 그 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간호에 지친 가족들을 위한 단기 입원 서비스도 운영한다.

현재 호스피스 팀은 의사 2명, 간호사 13명, 가정전문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원목 담당자 1

명, 자원봉사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학제적 팀 접근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1998년 병동책임을 맡은 3명의 간호사가 영국 성요셉 호스피스 병원, 영국 헤롤드크로스병원, 아일랜드 더블린의 호스피스병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의사 2명은 영국에서 호스피스 완화의학 분야의 연수를 하였다. 그 외에도 호스피스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간호사들이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꾸준한 직원양성을 위해 호스피스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원내스터디를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필독서를 읽고 있다. 이외에도 자아 성장그룹, 의사소통을 위한 자기표현 훈련, 리더십 교육 등에 참여한다. 매주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손님의 다양한 욕구를 이해하고 전인간호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를 '손님 (Client)'으로 칭하며, 호스피스 원목서비스를 위해 전담 수도자가 매일 손님을 방문하여 영적 돌봄을 실시한다.

2005년 이후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주관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 암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와 협약을 맺고 재가 암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2008년 수도회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하나로 10월 28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호스피스 주간센터 및 노인 호스피스의 개설,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호스피스 단기 과정의 재개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